

“나에게 나눔이란 변화를 의미”

임상연구부 이은혜 사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을 가장 좋아한다는, 20대의 꽃다운 사노피안 CSU의 이은혜 님. 봉사를 ‘삶의 일부’ 라고 표현하는 그녀에게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은혜 님이 봉사활동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바로 대학교 1학년 때 떠났던 몽골 봉사활동. 그곳에서 만난 소녀로부터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삶이 더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당신 덕분에 내 삶에 변화가 시작된 것 같아요’라는 말을 들은 후, 은혜 님 자신의 삶에도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은혜 님은 인도, 태국, 토고, 멕시코까지 대학생할 내내 매년 해외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전기도 없고 물이 부족한 토고에서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면서, 마음껏 씻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경험했고, 멕시코에서는 집도 친구도 없어 바닥에 낙서만 하고 지내던 5살 아이와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이는 ‘모래랑만 친구였는데, 많은 친구들도 생기고 집도 생겨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답니다. 마음이 짱하죠?



토고 아이들과 행복한 나들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은혜 님. (뒷줄 맨 오른쪽)

사노피안이 된 후, 은혜 님은 학창시절의 경험을 이어 회사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록산타 상상학교’를 비롯해 사노피 젠자임의 ‘착한 걸음 6분 걷기 캠페인’, 사노피 파스티르의 ‘헬핑핸즈’ 활동에 참여해 사노피 봉사활동 분야의 그랜드슬램을 달성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1형 당뇨병 및 희귀 질환 어린이들을 위한 ‘상상 놀이터’ 운영을 도

왔는데, 14주간 준비한 아이들의 공연과 결과물을 함께 보고 축하해 줄 수 있어 참 좋았다고 합니다. 은혜 님에게 있어 ‘나눔’이란 ‘변화’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도움을 주고받는 이들 모두에게 삶의 변화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봉사활동을 통해 한층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마음 따뜻하고 속 깊은 동료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사노피 파스티르 ‘헬핑핸즈’ 활동에 참여해 노숙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겨울옷 수거 및 배분 활동을 지원했습니다.